

제418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7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김원이 위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 위원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건 조정을 위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이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기왕에 모였으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좀……

○ 위원장 이철규 아니, 오늘 의사진행을 해봤자…… 그다음에 또 현재……

○ 김원이 위원 몇 분이라도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철규 오늘 하여튼 간 충분히……

○ 김원이 위원 그러면 대표로 저만이라도 하게 해 주시지요.

○ 박형수 위원 안건 협의가 안 됐는데 무슨……

○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오늘 회의를 소집 요구하신 바를,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회의 소집이 됐고 하니까요……

○ 김원이 위원 그래서 안 와서 안타까움이라도 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지금 또……

○ 김원이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동안 잘해 주셨으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그동안이 아니라 또 사실은 어차피 상대가 있는 건데 지금 여당 위원들이 의총 중에 있고 하는 바람에……

○김원이 위원 그런데 제가 대표로……

○위원장 이철규 그래서 제가 안건 조정이 안 됐으므로 말이지요, 그런데……

○김원이 위원 그러면 대표로 저만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자, 잠시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신 김원이 위원님과, 열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김원이 위원님의 말씀만, 의견만 청취하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3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경제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널을 뛰었고 환율은 1440원까지 급등했으며 1450원까지 급등할 거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미뤄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제 말단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기대했던 여행객, 외식업, 호텔, 연말 모임 등이 줄춰소되면서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 진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말 쪽박을 깨고 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안덕근 산자부장관과 오영주 중기벤처부장관이 이 사태에 연루되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 안건 협의가 안 되어서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솔직히 얘기하면 위기의식이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기간산업의 계엄 쇼크에 대해서 당장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산업·경제, 민생경제 현안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월요일 날 법안소위와 화요일 날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 전체회의를 시급하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열고 난 이후에 법안소위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법안소위에는 지금, 법안소위 안건은 법안 상정이 되었으나 논의하지 못했던 안건을 먼저 하되 시간이 되면 반도체, 해풍법, 고준위법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법안을 의결하는 전체회의를 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민 간사님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 간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안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공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4인)**

곽상언 권향엽 김교홍 김동아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송재봉 오세희 이연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